

커피차 선물... 타이거즈 '10번 타자들' 함께 뚝다



주중 안방에서 SSG 랜더스를 상대한 KIA는 3연전 내내 '커피 잔치'를 받았다. 팬들이 보내준 선물이었다. 9일 외야수 이창진 앞으로 커피차가 도착했고, 10일에는 투수 전상현, 11일에는 내야수 김규성이 커피차 선물을 받았다.

전상현과 김규성은 처음 받아본 '깜짝 선물'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상현은 "깜짝 놀랐다. 처음 받았는데 기분이 좋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잘 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규성은 동료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대접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다. 김규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봄날이다.

김규성은 올 시즌 명장면으로 남은 홈스틸의 주인공이다.

지난 4월 29일 LG와의 잠실 원정경기, 5-3으로 쫓기고 있던 9회 KIA가 삼중도루를 시도했고 3루에 있던 김규성이 홈을 파고들었다.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 정적에 빠졌던 잠실은 이내 KIA 팬들의 환호성으로 돌아올랐다.

이 점수로 KIA는 LG의 추격의지를 꺾고 6-3 승리를 만들었고, 기세를 이어 스프링에 성공했다.

홈스틸로 팬들을 웃게 한 김규성은 팬의 깜짝 선물에 웃었다.

김규성은 "나중에 야구 인생 돌아보면 첫 번째로 기억에 남 장면일 것 같다. 야구하면서 첫 홈스틸이었다. 정말 짜릿했다"고 홈스틸 장면을 떠올렸다.

SSG와 3연전 내내 '커피 잔치'

팬들이 보내 준 깜짝 선물

지난 LG전 홈스틸 주인공 김규성

"홈런 보다 짜릿... 또 해보고 싶어"

김규성은 또 "처음에는 아웃되면 어떻게 하지는 생각도 없었다. 4-5발 뛰는데 공이 안 와서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홈플레이트만 보였다"며 "잠실이 난리났다. 너무 짜릿했다. 홈런 친 것보다 더 좋았다.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만 그 장면 100번은 넘게 본 것 같다. 어제도 봤다. 매일 보고 있다(웃음). 어떤 타이밍에 뛰었고, 어떻게 스타트해서 살았는지 보다. 보면서 '이걸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을 했다. 다시 또 기회가 오면 성공하고 싶다. 언젠가 또 한 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조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김규성.

김규성은 "작년, 재작년 사합에 나가면서 팀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았다. 올 시즌에는 안 아프고 어떻게 해서든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백업 선수들도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행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열심히 잘하는 게 선수들의 임무다"며 "많이 이겨서 승리 세리머니도 많이 하고 싶다. 제 장점을 계속 보여줘야 시합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A 내야수 김규성이 11일 팬이 보내준 '커피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또 "커피차 선물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다.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선수니까 계속 구

준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다"고 좋은 플레이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방에서 팬들의 푸짐한 커피 선물을 받은 KIA

는 주말에는 잠실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만나러 간다. KIA는 12일 이의리를 선발로 내세워 두산과 원정 주말 3연전에 돌입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인터 밀린의 에딘 제코(오른쪽)가 11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AC 밀란과 2022-2023 UCL 준결승 1차전에서 골을 넣은 뒤 동료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8년 만의 'UCL 밀라노 дер비' 인터 밀란 먼저 웃었다

AC 밀란과 준결승 1차전 2-0 승 37세 에딘 제코 선제골 기선제압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놓고 성사된 '밀라노 дер비'에서 인터 밀란이 AC 밀란(이상 이탈리아)에 첫번 완승을 거뒀다. 인터 밀란은 1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2022-2023 UCL 준결승 1차전에서 전반 11분 만에 두 골을 뽑아내며 2-0으로 이겼다.

인터 밀란은 우승을 차지한 2009-2010시즌 이후 13년 만에 4강 무대를 밟은 데 이어 결승행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AC 밀란은 8강에서 김민재가 뛰는 이번 시즌 세리에A 우승팀 나폴리(이탈리아)를 잡고 마지막으로 우승한 2006-2007시즌 이후 16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첫 경기를 내주며 위기에 몰렸다. 2차전은 17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이 대결에서 이긴 팀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의 승자와 6월 1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결승전에서 격돌한다.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터는 10일 1차전에서 1-1로 맞선 뒤 18일 2차전을 치른다.

UCL에서 18년 만에, 준결승으로는 20년 만에 성사된 '밀라노 дер비'에서 인터 밀란은 시작 8분 만에 기선을 제압했다.

하간 잘하노를루가 차출된 왼쪽 코너킥 때 제코가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 속에서 때린 원발 발리슛이 그대로 골 그물을 흔들었다.

1986년생인 제코는 37세 54일로, 역대 UCL 준결승전 최고령 득점 2위 기록을 세웠다. 1위는 2011년 4월 당시 37세 148일에 살게(독일)를 상대로 득점했던 라이언 기스(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인터 밀란은 전반 11분 다시 한 골을 만들어내며 기세를 올렸다.

페데리코 디마르코가 왼쪽 측면에서 투입한 낮

은 크로스를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떠낸 헨리크 마키타리안이 그대로 페널티 지역 안으로 돌파해 오른발 슛을 꽂았다.

전반 16분엔 잘하노를루가 페널티 아크 뒤편에서 때린 매서운 오른발 중거리 슛이 오른쪽 골대를 맞히는 등 인터 밀란은 계속 몰아쳤다.

전반 31분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수비수 시몬 키에르에게 잡혀 넘어졌다는 이유로 페널티킥이 선언돼 인터 밀란이 쐐기 골 기회까지 잡았으나 주심의 온 필드 리뷰를 통해 취소되기도 했다.

AC 밀란은 후반 18분 올리비에 지루의 패스에 이은 산드로 토날리의 슛이 골대를 맞히는 등 끝내 한 골도 만회하지 못하며 2차전의 부담을 떠안았다. 핵심 축전 공격수인 하파엘 레아가 부상으로 빠진 것이 AC 밀란으로선 뼈아픈 부분이었다.

이날 AC 밀란은 점유율에선 57%로 앞섰으나 전체 슈팅 수에서 14-18, 유효 슈팅 수에선 2-5로 인터 밀란에 밀렸다.

/연합뉴스

'철기둥' 김민재, 나폴리와 헤어질 결심

'EPL 명가' 맨유로 이적할 듯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우승의 기쁨을 맛본 '나폴리의 철기둥' 김민재(26)의 새로운 동지가 'EPL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로 옮겨지는 모양새다.

영국 매체 팀포크는 11일(한국시간) "맨유의 에릭 텐하흐 감독이 새 시즌 팀의 리빌딩을 위해 스트라이커와 중앙 수비수, 오른쪽 풀백을 영입할 계획"이라며 "가장 먼저 김민재와 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투토메르카토편 "맨유가 앞으로 30일 이내에 김민재의 영입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 맨유는 5000만~6000만 유로에 달하는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조항을 맞출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민재가 맨유 품에 안기면 '레전드' 박지성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맨유 유니폼을 입는 선수가 된다. 수비수로는 한국 선수 최초가 된다.

김민재는 2019년 1월 중국 베이징 귀안으로 이

적하며 첫 해외 진출에 성공했고, 중국 무대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친 끝에 2021년 8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유럽 무대에 입성했다. 마침내 지난해 7월 나폴리에서 러브콜을 받고 빅리그 무대로 뛰어든게 됐다.

김민재는 나폴리의 '불박이' 중앙 수비수로 활약했고, 2022-2023시즌 세리에A에서 33경기(2골 2도움)를 뛰면서 팀의 조기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22-2023시즌이 끝을 보이면 김민재를 향한 빅클럽들의 영입 시도가 본격화했다.

나폴리도 김민재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7월 1~5일까지 이탈리아가 아닌 외국클럽을 대상으로 발동되는 바이아웃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민재와 '헤어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의문에 따르면 맨유는 6000만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을 맞출 각오가 끝났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나폴리는 페네르바체에 지불했던 1950만 유로의 이적료보다 3배 넘는 돈을 벌게 된다.

/연합뉴스

발목 수술 받은 우즈, PGA 챔피언십 불참

최근 발목 수술을 받은 타이거 우즈(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않는다.

11일(한국시간) 대회를 주관하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가 발표한 이번 대회 출전 선수 명단에는 우즈의 이름이 빠져있다.

PGA 챔피언십은 오는 19일부터 미국 뉴욕주 피츠피드의 오크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우즈의 이번 대회 불참은 지난달 20일 수술받은 사실을 알릴 때 이미 예상된 일이다.

우즈는 2021년 2월 교통사고 때 부러졌던 오른쪽 발목 복사뼈의 외상 후 염증을 치료하려고 뉴욕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술은 다 회복하는데 빨라야 8주에서 12주가량 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년 교통사고로 크게 다졌던 그는 기적같이 재기해 지난해 마스터스에 출전, 큰 감격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족저근막염 등 크고 작은 후유증에 시달렸다.

올해는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에서 컷 통과를 이뤘지만, 눈에 띄게 다리를 절어서 또 다른 후유증이 아닌지 우려를 낳았고 끝내 수술대에 올랐다.

우즈는 6월 US오픈과 7월 디오픈도 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상급 선수가 거의 전부 들어간 출전 선수 명단에는 LIV 골프 선수 18명이 포함됐다.

마스터스에 이어, 또 한 번 PGA투어와 LIV 골프의 자존심 대결이 예상된다.



린 필 미켈슨(미국)이 LIV 골프의 메이저 정복 선봉에 선다.

캐머런 스미스(호주), 터스틴 존슨, 브라이슨 디쇼보, 패트릭 리드(이상 미국),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그리고 교포 김시환도 출전한다.

온 람(스페인), 스코티 셰플러(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 '빅3' 대결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가운데 디펜딩 챔피언 저스틴 토머스, 콜린 모리카와(미국), 제이슨 데이(호주) 등 역대 챔피언도 대부분 출전한다.

세계랭킹 100위 이내 선수 가운데 부상으로 시즌을 접은 윌 찰러토리스(미국)를 뺀 99명이 출전을 확정했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김주형, 김시우, 이경훈 등 PGA투어 현역 4인방과 함께 2009년 PGA 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도 이번 대회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